

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, 청년농 간담회...농지지원 확대 논의

[윤성수]

현장 애로 청취·제도 개선 방향 모색

맞춤형 농지지원 강화...청년농 정착 기반 확대



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31일 해남완도지사에서 청년농업인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 사진=한국농어촌공사 제공

매일일보 = 윤성수 기자 |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31일 해남완도지사에서 청년농업인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간담회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, 공사 담당자 등 10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.

참석자들은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초기 자본 부담 등 청년농이 직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, 농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.

해남완도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과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난해 1550농가에 520ha의 농지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해왔다.

또 올해부터는 선임대후매도사업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을 위한 농지지원 예산을 확대하고, 초기 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
정경훈 해남완도지사장은 "청년농이 미래 농업을 이끌 핵심 주체인 만큼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"며 "이번 간담회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